

연봉동자상이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나 정 · 이 영 림(범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연봉동자상의 지물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봉동자상은 국립청주박물관(2003)의 『불교동자상』에서 29점과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4)의 『한국의 사찰문화재』에서 25점 그리고 홍윤식 등(1991)의 『전국 사찰 등 소장 동자상 조사보고서』에서 6점, 총 60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봉동자상의 특징은 연꽃, 연잎, 연봉가지, 연봉오리, 연잎줄기 등을 지물(소지하고 있는 물건)로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연봉오리가 가장 많았다. 또한 동자상의 얼굴은 둥글고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밝은 표정이며, 머리가 크고 몸이 상대적으로 작은 실제 어린이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연봉동자상이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상은 ‘자신의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어린이’와 ‘나쁜 것에 쉽게 물들지 않는 어린이’이다. 둘째, 교육관은 ‘아동은 모든 존재의 바탕에 청정심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밝히는 정화능력을 기른다.’이다. 본 연구가 인성교육 관점에서 불교아동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연봉동자상, 불교아동교육, 아동상, 교육관, 인성교육

* 본 연구는 2015년 동국대학교 DG선진연구강화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종교는 인간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종교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행동, 사고 등에 대해 가르침을 준다는 점에서 교육과 유사한 점이 많다.

동서양의 많은 교육사상가들은 종교와 교육이 가지는 본질적인 연관성을 근거로 교육 이론에 적용하고 그 사상들을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¹⁾ 독일의 유치원 창시자인 프뢰벨의 교육이론이 종교교육학 영역²⁾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이 바로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의 실제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한 방법으로 불교적 접근을 제안하기도 한다.³⁾

불교적 접근을 아동의 교육에 접목시킨 분야가 바로 불교아동교육이다. 그런데 불교아동교육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과 이후 모두 불교의 인간관, 교육관, 아동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⁴⁾ 즉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불교아동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⁵⁾ 불교아동교육의 목적을 규명한 경우가 많다.⁶⁾ 따라서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붓다”이며, “아동은 불성을 가진 존재”이고, “불교아동교육의 목적은 붓다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등이 연구내용의 핵심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불교아동교육에서는 대체로 아동은 본래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성품을 발현하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줄 아는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⁷⁾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아동의 수준에 적절한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 일상의 활동을 통해 교육을 실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⁸⁾ 다행히 이러한 프로그램들

1)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3쪽.

2) 이상옥, 『프뢰벨과 기독교 유아교육』(서울: 양서원, 1996), 16쪽.

3) 여승민, 「가치 교육에 있어서 불교적 접근법의 의의」 『윤리철학교육』10(충북: 윤리철학교육학회, 2008), 143-161쪽.

4) 권은주, 「인간아동 발달 및 교육에 관한 동서양 비교연구」 『아동권리연구』1(1)(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133-153쪽; 김승환, 「불교경전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연구」 『教育論叢』26(2)(서울: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6), 305-314쪽.

5) 황옥자, 「불교와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4쪽.

6) 박부숙·이수경,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5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3쪽.

7) 권은주, 「불교의 아동교육관에 대한 연구」 『석림』23(서울: 동국대학교, 1990), 145-158쪽; 김승환, 앞의 글, 301-326쪽; 황옥자, 앞의 글, 1-29쪽.

8) 권은주, 「불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Ⅱ)」 『종교교육학연구』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5), 75-92쪽; 권은주, 「불교 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적용」 『아동권리연구』4(2)(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2000), 171-181쪽; 권은주·박사빈, 「어린이 오계(五戒)를 주제로 한 유아음악활동 연구」

의 효과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동교육에서 불교적 접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⁹⁾ 그러나 불교를 유아교육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접목한 아동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제 등에 대한 시사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⁰⁾

한편 동자상의 기원은 불교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보살화현으로 등장하는 문수·보현·선재동자와 선악·공양동자, 시동·화동 등이 대표적이다. 동자상은 대승불교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불교미술의 소재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불교의 대표적 장엄물인 불화에도 다양한 동자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의 수월관음이나 조선시대의 시왕탱화 등을 살펴보면, 다양한 표정과 모습을 한 동자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불교 동자와 관련한 연구는 설화를 중심으로 한 불교사적인 연구¹¹⁾와 미술사적인 연구¹²⁾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교의 동자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아동으로서의 동자, 특히 불교의 동자상을 교육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동자상이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 교육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한다.¹³⁾

『종교교육학연구』 3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97-114쪽; 박선영, 「佛敎의 兒童敎育觀과 그 韓國的 展開相」 『敎育史敎 育哲學』 3(서울: 교육철학회, 1979), 19-36쪽; 이영림(범우)·김혜순, 「어린이집 생명존중교육의 난점과 명상의 접목가능성 탐색」 『한국불교학』 75(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393-427쪽; 이정수, 「불교의 팔정도와 위빠사나 명상의 아동 교육적 함의(含意)」 『종교교육학연구』 3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299-323쪽.

9) 나정·김영연, 「공보육기관 운영의 불교적 요소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34(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203-225쪽; 유지현(고진)·김혜순,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종교교육학연구』 48(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45-169쪽.

10) 임상도·김윤미, 「불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교육과학연구』 45(4)(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4), 43-64쪽.

11) 김용덕, 「불교설화에서 동자(童子) 출현의 양상과 의미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5(경기도: 실천민속학회, 2010), 169-195쪽; 여은경, 「韓國 傳統時代의 童子信仰」 『역사교육논집』 13(대구: 역사교육학회, 1990), 809-843쪽; 이강욱, 「오세암 설화와 동자의 수행특도」 『어문학』 128(대구: 한국어문학회, 2015), 159-187쪽; 임진광,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상」, 국립청주박물관 편, 『불교동자상』(서울: 솔출판사, 2003), 254-281쪽; 조명렬, 「童子像으로 表現된 佛敎信仰」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8(경기도: 중앙승가대학교, 1999), 241-258쪽; 해주, 「『華嚴經』의 善財童子 순례」 『불교학연구』 7(서울: 불교학연구회, 2003), 415-435쪽.

12) 강소연, 「불화와 함께 보는 경전 이야기③- 『화엄경』 <입법계품>: 선재동자 이야기(1)-」 『문학/사학/철학』 37(서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205-224쪽; 고정은, 「아시아미술에 나타난 선재동자 구별이야기」 『수완나부미』 2(1)(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2010), 119-127쪽; 안정수, 「19세기 지장보살도에 보이는 선악동자 도상 연구」 『文物研究』 20(부산: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2011), 113-148쪽; 임영애, 「『꽃줄과 동자』를 통해 본 간다라와 서역의 교류관계」 『강좌미술사』 25(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05), 149-168쪽; 홍윤식, 『高麗佛書의 研究』(서울: 同和出版公社, 1984).

13) 홍윤식·최태희·이기선·김형우, 『전국 사찰 등 소장 동자상 조사 보고서』(서울: 문화재관리국, 1991).

최근 들어 아동의 삶이 날로 피폐해 지고 있다. 일부 성인들이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지를 우선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아동을 교육하는 기관의 교육자들은 다양한 부모들의 요구로 갈등하고 있다.¹⁴⁾ 아동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다른 부모와 사회 사이에 끼인 아동들은 어린 시기부터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¹⁵⁾ 그런데 아동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한 개인의 미래는 물론 국가 사회의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동상에 대한 국가, 사회와 교육계의 관심 및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아동교육에서 추구할 아동상을 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교육관을 새롭게 탐색해 보는 일은 현대 아동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사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연꽃’과 ‘동자’는 불교아동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꽃과 동자를 시각적인 조형물로 포함하고 있는 도록과 보고서 및 자료집 등에서 연봉동자상을 확인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사 혹은 미술사 측면에서 동자상을 다루기보다는 동자상이 가진 지물의 특징을 단서로 아동에 대한 상이나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연꽃과 동자의 의미를 살펴보고, 연봉동자상과 지물을 토대로 불교아동교육의 아동상과 교육관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불교경전에 나타난 연꽃과 동자

불교경전에 나타난 연꽃과 동자의 개념 및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교사상과 세계관을 담고 있는 연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꽃(lotus flower)과 수련(water lily)을 ‘연꽃(Lotus)’이라 혼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꽃(lotus flower)은 수련과 비교해서 연밥을 가지고 있고 꽃과 많은 열매가 동시에 자라난다는 점이 다르다.¹⁶⁾ 그리고 연꽃은 생태학적으로 수련과의 다년생 수생식물이며 주야식물에 속한다.

14) 김보영·김현주,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9(6)(경기도 :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73-106쪽; 노상경, 「유아교사-어머니 간 의사소통 저해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73(충북: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211-232쪽.

15) 손남숙, 「학령전기 한국 아동의 정서행동장애에 관한 연구 : Early child inventory - IV(ECI-IV)검사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순자·유수옥,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국내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16(6)(서울: 한국영유아교육학회, 2012), 127-156쪽.

16) 최윤철, 「고려청자에 표현된 연꽃문양의 유래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6(2)(경기도: 한국도자학회, 2010), 137쪽.

이러한 연꽃은 불교의 대표적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꽃은 뿌리가 물 아래 진흙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정화능력을 가진 연꽃은 불교에서 혼탁한 오락악세에서도 쉽게 물들지 않는 청정성과 고매한 성품에 비유한다. 특히 연꽃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 교학적 원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불보살의 지혜와 수승한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에 연꽃은 삼계(三界)에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교화적 방편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¹⁷⁾

이처럼 맑고 깨끗한 본성을 상징하는 연꽃¹⁸⁾은 석가모니의 탄생설화가 담긴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에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부처님이 점점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올 때 나무 아래는 일곱 가지 보석과 일곱 가지 경으로 된 수레바퀴와 같은 연꽃이 솟아났다. 부처님은 곧바로 그 연꽃 위에 떨어져 앉아주는 사람도 없이 스스로 일곱 걸음을 걸어갔다.¹⁹⁾

싯다르타가 태어난 직후 사방으로 7보를 걸을 때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그리고 주위를 두루 살펴보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 하늘 아래 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天上天下 唯我獨尊)”라는 사자후를 하였다. 이 탄생계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고통의 실체를 알고 이러한 사바세계에서 일체 존재가 편안하고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자비 실천’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불설제개장보살소문경(佛說際蓋障菩薩所問經)』에서는 보살의 교행을 연꽃의 생장 형태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십종법(十種法)²⁰⁾을 제시한다. ① 모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멀리 한다(離諸染汚) ② 나쁜 업과 함께 하지 않는다(不與惡俱) ③ 계향이 충만하다(戒香充滿) ④ 자신의 본성을 늘 청정하게 지닌다(本體清淨) ⑤ 얼굴빛이 부드럽고 미소를 띠고 있다(面相喜怡) ⑥ 유연하여 부러지지 않는다(柔軟不澁) ⑦ 보는 사람마다 모두 좋은 일이 생긴다(見者皆吉) ⑧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開敷具足) ⑨ 활짝 핀 꽃을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成熟清淨) ⑩ 이미 싹이 날 때부터 연꽃인지 알 수 있다(生已有想). 이것은 청정행의 인과(因果)가 되며, 보살의 10바라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서는 경명(經名)을 통해 연꽃의 상징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

17) 위의 글, 139쪽.

18) 권기현, 「불교예술에 나타난 연꽃의 상징성 연구」 『密敎學報』8(경북: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6), 111-134쪽.

19) 『過去現在因果經』(大正藏 3, p.625上). 菩薩漸漸 從右脇出 于時樹下亦生七寶七經蓮花 大如車輪 菩薩即便墮蓮花上 無扶侍者 自行七步.

20) 『佛說際蓋障菩薩所問經』(大正藏 14, pp.726-727下中). 菩薩若修十種法者 卽如蓮華 何等爲十 一者離諸染汚 二者 不與惡俱 三者戒香充滿 四者本體清淨 五者面相喜怡 六者柔軟不澁 七者見者皆吉 八者開敷具足 九者成熟清淨 十者生已有想.

러내고 있다.²¹⁾ “지혜를 비유한 것이 곧 연(蓮)이요, 행을 비유한 것이 곧 화(華)이니 지와 행이 다 온전해야 묘(妙)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였다.²²⁾ 그리고 실상법문에 다음과 같이 연꽃을 비유로 들었다.

꽃은 곧 과로서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하니, 이것이 이 꽃의 실상이다. <중략>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하듯 3을 모아 하나로 이룬 것은 연이 제 꽃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듯 법과 비유가 한꺼번에 들어나고 이름과 실상이 아울러서 나타나게 하고자 하여 이름을 妙法蓮花라 한 것이다.²³⁾

이러한 이유에서 연꽃은 자성청정(自性淸淨)·처염상정(處染常淨)·화과동시(花果同時)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²⁴⁾ 즉, 본성이 본래부터 청정하여 오탁악세의 더러움이나 번뇌, 집착에서 온전히 벗어나 그 청정성을 유지하며, 다른 식물과는 달리 꽃과 열매를 함께 피우므로 그 본체 안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자생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²⁵⁾ 이것은 부처님이 될 근본 성품인 불성(佛性)사상과 불교의 인간관 및 세계관을 잘 드러낸다. 누구나 성불(成佛)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해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인성 함양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²⁶⁾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마음처럼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연꽃을 “비행물체”와 같은 “교통수단의 역할”로 표현하기도 한다.²⁷⁾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연꽃과 같은 성품을 간직하면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과 누구에게나 그러한 가능성이 본성에 내재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불교의 동자(童子)를 들 수 있다. 동자는 티없이 맑고 순진무구한 천진불(天真佛)이라 표현한다. 불교경전에서는 동자를 생명력과 청정함을 가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어린이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동자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나이 어린 사내아이’를 뜻하지만,²⁸⁾ 불교경전 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21) 이처럼 경명에 연꽃이 표현되는 경전으로 『화엄경』을 들 수 있으며, 화장장엄세계해, 연화(蓮花), 화엄(華嚴) 등으로 서술하였다. 이 밖에도 『연종보감』권8에서 연태가 연꽃을 상징하고 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본다. 『구품왕생아미타경』, 『무량수경』에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에서 피어나는 보련화, 여덟 장의 꽃잎을 가진 팔엽 연꽃에 관한 『종경록』, 『대일경』의 ‘태장계만다라’, 부처님이나 보살이 연꽃 위에 앉는 뜻과 관련해 『대지도론』, 연꽃의 4가지 덕에 관해 『화엄경탐현기』 등에 서술되어 있다. 최윤철, 앞의 글, 140-141쪽; 허균,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경기도: 돌베개, 2014). 12-20쪽을 참조함.

22) 한글대장경, 『묘법연화경』 해제: 1-9.

23) 한정섭·김인택, 『妙法蓮華經譯解: 戒環疏를 中心으로』(경기도: 佛敎通信敎育院, 1994).

24) 권기현, 앞의 글, 115-116쪽; 최윤철, 앞의 글, 139쪽.

25) 권기현, 같은 글.

26) 최윤철, 앞의 글, 142쪽.

27) <오르바진 연꽃서 7일 기다린 행자 앞 열리며 진리 듣고 수다원 언어> 《법보신문》, 2016년 11월 9일자, 제21면.

담고 있다.²⁹⁾

첫째, 4세 또는 8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동자, 여자아이를 동녀라고 부른다. 또한 이를 동아(童兒), 동진(童眞), 동남(童男)이라 한역하며, 구마라(Kumara, 兜摩羅)라고 음역한다. 『남해기귀내법전』에는 동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오로지 불전을 염송하면서 삭발하기를 희망하고 필경에는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동자라고 한다.³⁰⁾

출가는 하였지만 아직 삭발이나 득도(得度)를 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동자라고 보았다. 여기서 득도는 구족계를 받지 않아 정식 스님이 된 상태를 말한다.

둘째, 출생이후의 생애를 5기로 나눌 때, 동자는 태외(胎外) 5위 가운데 제2에 해당된다.³¹⁾ 『구사론』에서 생애에 대한 연령범주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아는 출생 후 6세까지, 동자는 7세에서 15세까지, 소년은 16세에서 30세까지, 중년은 31세에서 40세까지, 노년은 41세 이후이다.³²⁾

여기서 동자의 연령대를 7세에서 15세까지라고 보았다. 이는 현대에서 ‘아동’의 사전적 의미를 유아 시기부터 12~13세까지로 보는 것과 아동복지법에 18세미만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상통한다.

셋째, 동자는 보살(菩薩)이다. 여기서 보살은 여래(如來)의 왕자로서, 음욕이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청정함을 지니고 있다. 다음의 『대지도론』에서 이러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동자와 같나니 4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자를 구마라가라 한다. 보살이 처음 보살의 집에 태어나는 것은 영아와 같고, 무생법인을 얻어 십주의 지위에 이르러 모든 악한 일을 여의는 것은 동자와 같기 때문에 구마라가지라고 한다.³³⁾

이것은 동자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인해 모든 일에 걸림이 없으며, 그러한 이

28)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새 국어사전』(서울: 동아출판사, 1995), 607쪽.

29) 다음의 불교사전을 종합하여 참고하였다. 가산 이지관, 『伽山 佛教大辭林』권5(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3), 307-308쪽; 운허용하, 『불교사전』(서울: 동국역경원, 2002), 185쪽; 弘法院編輯部, 『佛敎學大辭典』(서울: 홍법원, 1994), 326쪽.

30) 『南海寄歸內法典』(大正藏 54, p.220中). “若專誦佛典 情希落髮 畢願緇衣 號爲童子.”

31) 『유가사지론』에서는 8위를 말하며, 동자는 제4위에 해당된다. 이것은 처태위(處胎位), 출생위(出生位), 영해위(嬰孩位), 동자위(童子位), 소년위(少年位), 중년위(中年位), 노년위(老年位), 모숙위(耄熟位)이다.

32) 한글대장경, 『묘법연화경』 해제: 1-9.

33) 『大智度論』(大正藏 25, p.275中). “復次又如童子 過4歲以上 未滿二十 名爲鳩摩羅伽 若菩薩 初生菩薩家者 如嬰兒得無生法忍 乃至十住地 離諸惡事 名爲鳩摩羅伽地.”

유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체 오염된 더러움에 응하지 않고 잠시라도 악한 마음을 내지 않는 높은 경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살과 같은 경지로 보는 것이다.

또한 『변역명의집』에서도 동자의 지위를 법왕자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보살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³⁴⁾

구마라가, 혹은 구마라타라, 구마라부다라고도 한다. 동진, 호동, 동자 등으로 번역된다. 「훈문」에 말하기를 안으로 참되고 항상된 도리를 증득하여 집착함이 없음이 마치 세속의 동자가 마음에 물들거나 애착함이 없이 천진난만한 것과 같으므로 법왕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³⁵⁾

이러한 동자의 수승한 경지는 부처님의 해명을 잇고 그 종자가 멸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법왕자와 같음을 말해준다.

넷째, 구법자로서의 동자이다. 대표적으로 80권 『대방광불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재동자를 들 수 있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마지막에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보살도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어 법계에 들어가기에 간절히 원하였다. 또한 그 53명에게 남녀노소귀천의 분별심없이 오직 법을 구하려는 일심으로 모든 대상을 향한 공경심을 가졌다. 그리고 보살도(菩薩道)를 배우는 데에 환희심으로 방만하거나 쉽게 물러서지 않는 진솔함과 강인함을 보여준다. 이에 동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하는 전령(傳令)과 사자(使者)로서의 역할 및 이미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시동으로서의 동자이다. 불교경전에 표현된 동자는 부처님이나 보살 및 제천 등을 시봉하거나 혹은 사찰에 서 잔일을 돕는 아이를 말한다. 법회 의식을 진행할 때 보조 역할을 하는데 주로 화관(花冠)을 쓰거나 혹은 번(幡)을 들기도 한다. 또한 노스님들이 외출할 때 동행하는 어린 아이를 동자라고 부른다.

Ⅲ. 연봉동자상의 특징

연봉동자상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아동학 교수인 연구자 1인이 연봉동자상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자료인 국립청주박물관(2003)의 『불교 동자상』, 문화재청·

34) 보살은 법왕(法王)이신 부처님의 지위를 계승하는 자로서, 법왕의 아들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가산 이지관, 『伽山 佛教大辭林』 권9(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7), 380쪽.

35) 『翻譯名義集』(大正藏 54, p.1060下). “鳩摩羅伽 或云鳩摩羅馱 或云鳩摩羅浮多 此云童眞 亦云毫童 亦云童子 熏聞云 內證眞常 而無取著 如世童子 心無深愛 卽法王子之號也.”

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4)의 『한국의 사찰문화재』, 그리고 홍윤식 등(1991)의 『전국 사찰 등 소장 동자상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각 자료집에 포함된 동자상 중에서 연(蓮)과 관련된 지물 - 연봉오리, 연봉가지, 연꽃, 연잎 등 - 을 들고 있는 동자상의 목록을 표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 종류의 자료집에 중복 포함되어 있는 동자상은 서로 내용을 확인한 뒤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목록을 정리한 다음에는 각 동자상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특징 기술은 각 자료집에 포함된 설명을 참고하되, 동자상의 사진을 모두 확인하여 얼굴 표정과 지물을 들고 있는 자세 등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일차적으로 정리한 동자상의 목록과 동자상의 특징을 기술한 내용은 교육학박사인 승려 1인과 한국불교사를 전공한 교수 1인이 원본 자료를 보면서 각각 검토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17~18일 사이에 연구자 2인이 동자상의 설명과 사진 자료를 다시 보면서 최종적으로 목록과 특징을 확정하였다.³⁶⁾ 이 과정을 거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연봉동자상은 60점이었으며, 다음의 <표 1>, <표 2>, <표 3>과 같이 목록과 함께 특징을 정리하였다. 목록에는 동자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연봉동자상의 명칭 및 소장 처와 함께 성별을 포함하였다.

다음 <표 1>은 국립청주박물관(2003) 『불교 동자상』에서 확인한 연봉동자상 29점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³⁷⁾

<표 1> 연봉동자상의 특징(국립청주박물관, 2003)

순	명칭 (소장 처)	지물	특징	성
1	목조연봉동자상 (상원사청량선원)	연봉오리	동자머리에 입가에 앓된 미소를 띤 복스러운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연봉오리를 세워서 들고 있음	남
2	목조연봉동자상 (상원사청량선원)	연봉오리	동자머리에 입가에 앓된 미소를 띤 복스러운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연봉오리를 수평으로 들고 있음	남
3	소조연봉동자상 (화엄사명부전)	연봉가지	밝은 미소 띤 사랑스런 표정으로 두 손을 벌려 연봉가지를 들고 있음	남
4	소조연봉동자상 (화엄사명부전)	연잎가지	통통한 얼굴에 고운 미소를 머금고 두 손을 벌려 연잎가지를 들고 있음	남
5	목조연봉동자상 (불갑사명부전)	연봉오리	부드러운 계란형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 온화한 얼굴로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6	목조연봉동자상 (불갑사명부전)	연봉가지	동자머리에 미소 띤 얼굴로 연봉가지를 들고 있음	남
7	목조연봉동자상 (불갑사명부전)	연봉오리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밝고 친진한 표정으로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36) 연봉동자상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수집된 사진 자료는 논문의 지면상 모두 실기 어려워 제시하지 않았다.

37) 국립청주박물관(2003)에 수록된 동자상은 조선시대(1392~1910)에 조성된 것으로서, 불교 관련 시대적 상황을 기술하고, 각 동자상의 소재, 크기, 옷 모양과 색, 얼굴 표정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8	소조연엽동자상 (선운사명부전)	연잎	둥글고 미소 띤 얼굴로 둥근 연잎을 들고 있음	남
9	목조연화동자상 (온양민속박물관)	연잎, 연봉	조용하고 우아한 표정의 얼굴로 연잎 받침 안에 연봉을 넣어 들고 있음	남
10	목조연봉동자상 (동도사성보박물관)	연봉오리	밝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 화려한 운건을 두르고, 큰 연봉오리가 달린 연꽃가지를 들고 있음	남
11	목조연엽동자상 (국립중앙박물관)	연잎	긴 눈매 오탁한 콧날 살며시 다문 입술의 살아있는 미소 년 같은 모습으로 연잎을 들고 있음	남
12	목조연봉동자상 (동국대박물관)	연봉가지	동자머리에 미소 띤 얼굴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큰 연봉가지를 들고 있음	남
13	목조연봉동자상 (가나아트센터)	연봉오리	동자머리에 온화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한 표정의 얼굴로 두 손을 가슴 앞에 들어 연봉오리를 받들고 있음	남
14	목조연봉동자상 (청운문화재단)	연봉오리	눈을 활짝 뜨고 통통한 얼굴의 미소를 머금고 작은 손으로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15	목조연봉동자상 (청운문화재단)	연잎, 연봉오리	큰 눈, 코, 입을 가진 내무난 얼굴로 큰 연잎 위에 서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16	석조연봉동자상 (옥천사)	연봉오리	미소 띤 온화한 얼굴로 두 손을 벌려 연봉오리를 받들고 있음	남
17	석조연엽동자상 (옥천사)	연잎줄기	머리를 길게 뺏아 늘어뜨린 댕기머리에 미소 띤 온화한 얼굴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큰 연잎줄기를 들고 있음	남
18	석조연엽동자상 (옥천사)	연잎줄기	미소 띤 온화한 얼굴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큰 연잎줄기를 들고 있음	남
19	목조연봉동자상 (해인사성보박물관)	연봉오리	머리에 연줄기가 달린 연잎 모자를 쓰고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가운데로 모아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20	목조연봉동자상 (해인사성보박물관)	연봉오리다발	동자머리에 온화한 얼굴로 왼손을 옆구리에 붙여 허리띠를 잡고 오른 손을 가슴 앞까지 들어 올려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21	목조연봉동자상 (해인사성보박물관)	커다란 연봉오리다발	명상에 잠긴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온화하고 통통한 앳된 얼굴로 어깨높이까지 솟은 큰 연봉오리 다발을 들고 있음	남
22	목조연봉동자상 (옥량문화재단)	연봉오리	동자머리에 넓적한 인형 같은 얼굴로 유난히 작은 팔과 손으로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23	목조연봉동자상 (옥량문화재단)	연봉오리	큰 얼굴 작은 키의 모습으로 양손으로 연봉오리가 달린 가지를 들고 있음	남
24	목조연봉동자상 (금산사성보박물관)	연봉오리	두 다리를 붙이고 왼쪽으로 몸을 돌린 경건한 모습으로 길고 탐스러운 연봉오리를 받들고 있음	남
25	소조연봉동자상 (용연사명부전)	커다란 연봉오리다발	미소 띤 복스러운 얼굴이며 자그마한 입과 큰 귀, 두 손으로 커다란 꽃다발을 비스듬하게 들고 있음	남
26	석조연봉동자상 (원광대박물관)	연봉오리	눈을 반쯤 감고 고요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가슴 앞에 손을 모아 연봉오리를 받들고 있음	남
27	석조연봉동자상 (청주대박물관)	연봉오리	가늘게 뜬 눈, 큰 코, 입가에 미소 띤 명상에 잠긴 해맑은 모습으로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28	석조연봉동자상 (청주대박물관)	연봉오리	자그마한 몸에 큰 얼굴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29	석조연봉동자상 (수덕사명부전)	연봉오리	자그마한 몸에 큰 얼굴로 고개를 오른 쪽으로 돌려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다음 <표 2>는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4) 『한국의 사찰문화재』에서 확인한 연봉동자상 25점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³⁸⁾

<표 2> 연봉동자상의 특징(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2-2014)

순	소장 처	지물	특징	성
1	경기 안성 칠장사	연봉오리	연잎 모자를 쓰고 밝게 미소 띤 얼굴에 두 손을 공손하게 가슴 앞에 모아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2	경기 화성 용주사	연봉가지 연봉오리	복스러운 얼굴에 얇은 미소를 띠고 오른 손으로 연봉가지를 왼손으로 연봉오리를 잡고 있음	남
3	경기 화성 용주사	연잎줄기	동자머리에 둥글고 귀여운 얼굴로 왼 손으로 연 잎 줄기 아래를, 오른 손으로 연 잎 줄기 위를 잡고 있음	남
4	경기 여주 신륵사	연꽃가지 연꽃	동자머리에 동그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오른 손으로 연꽃가지 아래를, 왼손으로 연꽃을 잡고 있음	남
5	강원 영월 보덕사	연봉오리	얇은 미소를 띤 통통한 얼굴을 약간 아래로 숙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6	강원 영월 보덕사	연봉오리	정면을 향한 밝은 미소를 띤 예쁘고 통통한 얼굴에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연봉오리를 들고 있음	남
7	충남 공주 마곡사	연잎줄기	동자머리에 통통한 얼굴에 큰 연잎 속에 물건이 가득담긴 연 줄기를 두 손으로 들고 있음	남
8	경남 창원 성주사	연봉가지다발	복스럽고 단정한 표정의 소녀가 두 손으로 연봉오리 다발을 세워서 들고 있음	여
9	경남 창원 성주사	연봉가지다발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어여쁜 소녀가 연봉오리 다발을 두 손으로 세워서 들고 있음	여
10	경북 경산 환성사	연봉오리	고개를 숙인 어여쁜 소녀가 연봉오리를 두 손으로 세워서 들고 있음	여
11	경북 영천 영지사	연잎	동자머리에 미소 띤 얼굴로 큰 연잎을 두 손으로 세워서 들고 있음	남
12	경북 영천 영지사	연잎	동자머리에 미소 띤 얼굴로 큰 연잎을 두 손으로 오른 쪽 어깨에 걸쳐서 들고 있음	남
13	경북 청도 덕사	연봉오리	동자머리에 복스러운 둥근 얼굴을 오른 쪽으로 돌리고 연봉오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음	남
14	경북 청도 덕사	연잎	동그랗고 미소 띤 다소곳한 얼굴로 연 잎을 머리에 이고 오른 손으로 받쳐 들고 있음	여
15	경북 청도 운문사	연봉오리	동그랗고 다소곳한 얼굴을 오른 쪽으로 향하고 높이 솟은 연봉오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음	여
16	경북 청도 운문사	연봉오리	동그랗고 다소곳한 미소 띤 얼굴을 약간 오른 쪽으로 하고 막 피어난 연봉오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음	여
17	경북 의성 대곡사	연자송이	연잎 모자를 쓴 미소 띤 둥근 얼굴을 하고 두 손으로 큰 연자송이를 받쳐 들고 있음	남
18	전남 진도 쌍계사	연봉가지	넓적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왼 손으로 옷자락을 잡고 오른 손으로 연봉송이를 공손하게 받쳐 들고 있음	남

38)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4)의 『한국의 사찰문화재』자료집은 전국의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물로 약 30권에 달하며 사진도 첨부 된 매우 방대한 자료이나 동자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19	전남 진도 쌍계사	연꽃, 연잎	넓적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연 잎 위에 활짝 핀 연꽃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공손하게 받쳐 들고 있음	여
20	전남 진도 쌍계사	연꽃, 연잎	넓적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개를 오른 쪽으로 돌려 연꽃을 들고 있음	여
21	전북 군산 불지사 (좌상)	연봉가지	동자머리에 미소 띤 얼굴로 앉아서 양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에 연봉가지를 들고 있음	남
22	전북 남원 실상사	연봉가지	동자머리에 미소 띤 얼굴로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높이 솟은 큰 연봉가지를 들고 있음	남
23	전북 고창 선운사	연봉가지다발	다소곳한 얼굴을 약간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연봉가지 다발을 들고 있음	여
24	전북 무주 향산사	연봉가지	단정한 얼굴에 뒤로 댄 머리를 하고 긴 연봉가지를 두 손으로 높이 치켜 들고 있음	여
25	전북 진안 천황사	연잎	머리에 연잎을 쓰고 미소를 띤 귀여운 얼굴로 양손에 따로 따로 둥근 연잎을 들고 있음	남

다음 <표 3>은 홍윤식 등(1991) 『전국 사찰 등 소장 동자상 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한 연봉동자상 6점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³⁹⁾

<표 3> 연봉동자상의 특징(홍윤식 등, 1991)

순	소장 처	지물	특징	성
1	서울 화계사	연봉가지	동자머리에 귀엽고 미소 띤 얼굴로 왼손으로 커다란 연봉가지 끝을 잡고 오른 손은 아래로 하고 있음	남
2	서울 화계사	연봉오리	동자머리에 미소를 띤 귀여운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아래를 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연봉오리를 오른쪽으로 들고 있음	남
3	서울 홍천사	연 줄기	땡기머리를 하고 미소 띤 얼굴에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연 줄기를 잡고 있음	남
4	서울 개운사	연잎	땡기머리를 하고 둥그란 얼굴에 두 손을 앞으로 내어 연잎을 들고 있음	여
5	경북경주 기림사	연봉가지	땡기머리를 하고 미소 띤 귀여운 얼굴에 양손을 앞으로 내어 두 개의 연봉가지를 따로 들고 있음	남
6	대구달성 용연사	연봉가지연봉오리	동자머리에 통통하고 둥근 얼굴을 하고 두 손으로 연봉가지를 비스듬하게 들고 연봉오리를 왼쪽 어깨에 대고 있음	남

위의 각 표에 정리한 연봉동자상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봉오리, 연봉가지, 연꽃 등을 들고 있는 동자들의 자세가 매우 공손하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거나 손을 벌려서 지물을 들고 있는 동자에게서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39) 홍윤식 등(1991)의 『전국 사찰 등 소장 동자상 조사보고서』는 동자상의 소재, 크기, 옷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흑백 사진을 첨부한 반면 얼굴 표정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았다.

여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승려는 물론 불자들도 부처님 전에 예를 드리거나 공양을 올릴 때에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고 지극히 공손한 자세를 취한다. 그런데 동자들은 불보살의 지혜와 수승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봉이나 연꽃을 들고 있으니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자의 자세를 통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동자의 간절한 의지와 순박함이 깃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연봉동자의 전체적인 분위기, 특히 눈빛을 통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동자상 중에는 마치 선정에 든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거나 어딘가를 오래 전부터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 마치 오락악세의 더러움이나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의연하게 청정성을 유지하려는 듯 보인다. 또 나 스스로 나의 본체 안에서 불도를 이루어내려는 의지, 바라는 바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다는 창조적인 의지를 엿 볼 수 있기도 한다.

셋째, 연봉동자가 들고 있는 지물 중에 연봉(연봉오리, 연봉가지)이 분석 대상 총60점 중에 43점으로 가장 많았다. 만개한 연꽃을 들고 있는 동자상의 수는 3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관경』에서는 연봉오리에서 7일 동안 기다린 수행자가 연잎이 열리면서 불법의 진리를 듣고 수다원광을 얻어 아라한지의 경지에 이른다고 표현하였다.⁴⁰⁾ 연봉오리는 꽃을 활짝 피우기 전 단계로 연봉오리 안에서 수행자가 굳은 신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로 볼 수 있다. 동자 연령기에는 무엇보다도 원만하게 심신 발달을 이루고 아동으로서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때이다. 즉, 연봉오리를 들고 있는 동자는 자신에게 불성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온전히 발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동자들의 얼굴 표정이 밝고 천진하고 해맑고 복스러우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얼굴 표정은 보통의 일반 어린 아동의 순수한 동심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표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준다. 맑고 깨끗한 심성이 자연스럽게 겉으로도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자상의 이미지는 때로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친근감과 편안함을 준다. 이러한 동자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더욱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자상의 모습은 현 시대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아에 대한 이미지인 어리고 귀엽지만 개구쟁이 같은 면도 있다는 느낌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하다.⁴¹⁾ 또 우리나라 아동소설에 나타난 아동상의 특징인 “순수 동심을 지닌 아동상”, “성장하는 아동상”, “명랑쾌활한 대중적 청소년상” 등과도 유사하다.⁴²⁾ 뿐만 아니라 근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화 ‘꾸러기’에 표현된 아동상인,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40) 《법보신문》, 앞의 글, 제21면.

41) 정진·성원경·이춘자·조인경,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兒童教育』16(4)(대구: 한국아동교육학회, 2007), 261-270쪽.

42) 정선혜, 「한국 아동소설에 나타난 아동상 탐색」 『한국아동문학연구』14(서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135-171쪽.

해방된 어린이”,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린이”의 특징과도 유사하다.⁴³⁾

다섯째, 연봉동자상은 남자가 많았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봉동자상 60점 중에서 동자는 49점이고, 동녀는 11점이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동자상 중 특히 공양을 드리는 동자상의 경우에 동녀인 경우도 있지만,⁴⁴⁾ 연봉동자상은 대부분 남자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봉동자를 조성한 시대가 주로 조선시대이고, 조선시대는 여자보다 남자가 중심이 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중심의 시대적 분위기가 연봉동자의 조성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동자들의 전체적인 신체 모습이 얼굴, 특히 머리가 크고 몸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실제 어린 아동의 신체 비례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동자들이 들고 있는 연봉들이 크고 무겁고 어린 아이들이 들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이는 상들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자들이 장차 도달해야 할 구도의 길이 힘들고 지난한 길임을 암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한다. 또 최근의 아동영화에 나타난 “울타리 밖에서 크는 아이들”, “삶의 지계를 진 아이들”, “어른아이로 사는 아이들”과 같은 맥락의 아동상을 나타내주는 모습이기도 하다.⁴⁵⁾ 비록 표정은 맑지만, 아직 어린 아동이 자신이 가진 온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 불도를 이루어야 하는 중압감도 느끼게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동자상은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박물관 등으로 옮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명부전에 있는 동자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어디에 있었던 동자상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동자상 중 명부전에 있는 동자상들도 위에서 기술한 특징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다.⁴⁶⁾

본 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연봉동자상의 특징은 현실의 아동과, 불교의 동자, 그리고 불교적 의미의 연봉이 서로 융합하여 구성한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어린 아동과 같은 신체를 가진 동자가, 맑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담긴 얼굴을 하고, 매우 공손한 태도로 연봉오리를 소중하게 들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간구하는 눈빛과 표정으로, 어린 동자가 들기에 연봉이 조금 버거운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43) 신정아, 「강초전 동화의 아동상과 교육관-‘꾸러기’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학회』 27(서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37-62쪽.

44) 예를 들면, 목아불교박물관 소장의 ‘석조천도동녀상’이나 가나아트센터 소장의 ‘목조공양동녀상’을 들 수 있다.

45) 구수연·나성식, 「2000년대 한국 아동영화에 나타난 아동상」 『열린유아교육연구』 16(6)(서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1), 405-421쪽.

46) 그러나 이와 같은 동자상의 특징은 명법스님이 언급한 동자상의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명법스님, 『미술관에 간 붓다』(서울: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4), 148쪽을 보면, ‘저승 세계를 재현한 명부전에 주로 동자상이 위치한다는 것은 놀랍고 충격적이며, “면면이 하나같이 다정스럽다.”는 윤희준의 평가는 소수 동자상에만 해당한다.’고 기술하였다.

Ⅳ.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연봉동자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교와 아동교육에서 추구하는 일반적인 아동상과 교육관의 내용을 따르기보다 불교의 연봉동자상과 이를 토대로 불교아동교육의 시사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출해 보고자 한다.

아동교육에서 아동상의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세부적인 방향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아동교육은 종교교육적 접근으로서 불교사상에 기초하면서도 그것이 현대사회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적용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아동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교육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아동상 정립을 위한 당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봉동자상이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아동상과 아울러 교육관을 제시한다.

첫째, 불교아동교육에서 아동상으로 ‘자신의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어린이’와 ‘나쁜 것에 쉽게 물들지 않는 어린이’를 제안한다.

이러한 아동상은 연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쉽게 오염되지 않고 향이 고매하여 청정하게 본성을 지키는 것과 동자 및 아동의 특성을 통합하여 정립한 것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현대적 요구 가치인 자발적인 의지와 주도성을 포함하였다. 영·유아기는 전인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때 경험한 양육과 교육의 질은 이후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동의 순수한 본래적인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발적인 주도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주어야 한다.

불교아동교육에서의 아동상과 일반 아동상의 공통점은 아동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본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불교아동교육의 아동상은 일반적인 아동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아동상에서는 아동 ‘개인’에게 초점이 되어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불교아동교육의 아동상은 ‘상호관계’ 속에서의 아동에 초점을 둔다. 이는 어린 연령에 중점을 둔 보살핌의 존재로서 보기 보다는 상호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아동이 배우고 그것을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적 환경이 되는 성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서 ‘아동 명상’을 정기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이해와 판단이 바르고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자신의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어린이’와 ‘나쁜 것에 쉽게 물들지 않는 어린이’는 아동이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재 상황적 판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교의 연기(緣起) 법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는 것이 아동상의 기초적 토대가 된다. 이것은 나와 모든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차별심이나 어떠한 결림이 없는 역동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모든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치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알게 할 것이다.

둘째, 불교아동교육의 교육관으로 ‘아동은 모든 존재의 바탕에 청정심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밝히는 정화능력을 기른다.’를 제안한다.

이 교육관도 이미 싹이 날 때부터 연꽃이며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연꽃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립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의지가 있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빨리 돌릴 수 있으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교육관은 불교적 인성교육으로서 그 핵심은 스스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잘 축적하는데 있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사회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내재적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공부’, ‘진학’, ‘취업’ 등이 우선인 교육목표에 치우쳐 있었고 그 결과 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그 내실화의 중요 관건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영·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인성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성교육을⁴⁷⁾ 더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이러한 의도는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관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으로 영유아기에 종교성 함양이 필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인간 삶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으며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세계로 이끄는 각각의 숭고한 가치들을 펼쳐왔다. 불교는 2600여 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추구를 위한 사상과 실천을 전수하며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됨의 교육 구현에 이바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아동교육의 교육관은 인간 본성의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⁴⁸⁾ 이것은 곧 ‘인성 함양을 위한 바른 길’로 연결된다

47)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8쪽.

48) 유상덕, 「영성의 보고로부터 배우는 근대교육의 성찰」,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학지사, 2007), 91쪽.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승기신론』을 통해 불교의 인성론을 도출하고,⁴⁹⁾ 불교의 인간관과 인성관을 관계 지은 연구⁵⁰⁾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 청담 대종사의 마음사상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현대 인성교육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거나,⁵¹⁾ 마조선사의 사상과 교화 행적을 중심으로 불교에서 보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에 관한 견해를 밝힌 연구,⁵²⁾ 그리고 인성교육에서의 불교의 역할 및 불교적인 인성교육의 방법론을 탐색하는 연구,⁵³⁾ 불교와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특성을 한국불교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⁵⁴⁾ 불교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한 연구⁵⁵⁾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특히 아동의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기의 바람직한 심성발달을 위한 불교의 역할⁵⁶⁾과 구체적인 실천적 교육 방안⁵⁷⁾ 및 불교적 접근의 인성교육,⁵⁸⁾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통한 접근⁵⁹⁾ 등이 있다. 불교아동교육에서 이러한 연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통합되어 아동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풍부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연봉동자상이 불교아동교육의 아동상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자신의 주변을 맑고 밝게 만드는 어린이’와 ‘나쁜 것에 쉽게 물들지 않는 어린이’이다. 불교아동교육의 교육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아동은 모든 존재의 바탕에 청정심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밝히는 정화능력을 기른다.’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아동상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어떠한

-
- 49) 송석구, 「불교의 인성론: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佛敎學報』 19(1)(서울: 불교문화연구원, 1982), 307-326쪽.
- 50) 곽만연, 「불교의 인간관과 인성관」 『學生研究』 29(1)(부산: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 51-61쪽.
- 51) 이현섭, 「靑潭의 마음사상이 人性教育에 제시하는 교육적 示唆」 『청담기술연구소』 (경남: 진주산업대학교, 2003), 91-124쪽.
- 52) 안경식, 「불교에서 보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마조선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53(부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43-56쪽.
- 53) 김주현, 「인성교육에서의 불교의 역할」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3(서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07), 239-245쪽.
- 54) 김수아, 「불교와 인성교육: 필요성과 특성, 그리고 방법-한국불교의 템플스테이-」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9(2)(서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3), 129-144쪽.
- 55) 박병기, 「불교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인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 355-370쪽.
- 56)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한국불교상당학회지』 5(1)(경북: 한국불교상당학회, 2013), 8쪽.
- 57) 박부숙·이수경, 앞의 글, 1-26쪽; 하수연·정서목, 「『팔정도(八正道)』에 담긴 유아 인성교육의 방법적 함의」 『MeFOT 창의인성연구』 1(1)(부산: MeFOT 창의인성학회, 2012), 153-173쪽.
- 58) 황옥자, 「유아기 심성발달에 관한 불교의 역할 및 방향모색」 『종교교육학연구』 1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305쪽.
- 59) 권대원·이영림, 「달라이 라마 행복론이 유아 인성교육에 주는 제언」 『생태유아교육연구』 12(3)(부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3), 33쪽.

상황에서라도 긍정으로 돌릴 줄 아는 정화의 힘을 가진 아동이다. 마음작용이 아동을 넘어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등 성인이 일상에서 모범을 보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불교아동교육의 아동상과 교육관은 불교경전의 ‘불교적 덕목’을 기초로 하여 ‘인성 함양’을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V. 제언

본 연구는 연봉동자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아동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에 연구목적은 두었으며, 특히 연봉동자상이 불교아동교육의 아동관과 교육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 내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 및 동향 분석 실시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나 연구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통합검색을 통해 1989년부터 현재까지 불교아동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았다. 이 과정을 통해 ‘불교아동교육’ 및 ‘불교유아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물 총47편(학위논문 25편과 학술지논문 22편)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또 불교 관련 도록과 보고서 및 자료집 중에서 동자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불교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술지를 집중 검토하여 보다 깊이 있는 불교적 관점에서 아동교육과 유아교육을 다룬 연구물들을 추가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또 동자상이 놓여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사진을 통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봉동자상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어 미술사나 역사적 관점을 되도록 제한하고 교육적 관점에서만 의미를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동자상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국미술사나 불교미술의 일부 장르로 접근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악을 기록하거나 공양물을 올리거나 동물들과 함께 하는 등의 여러 동자상의 모습 중에서 특히 ‘연봉동자상’ 만을 주제로 삼았다. 또 ‘연봉동자상’ 만을 기초로 하여 ‘아동상’과 ‘교육관’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동자상을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한 불교아동교육의 관점에서 아동상과 교육관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불교아동교육에서 정론처럼 굳어진 아동상과 교육관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아동상과 교육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불교아동교육 연구의 과제는

오래되었지만 가치가 있는 것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관에 대한 연구도 국가수준의 아동 교육과정과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시대 반영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교육현장에 부합되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불교아동교육의 아동상과 교육관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분석이 불교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불교아동교육의 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된 불교아동교육 관련 연구는 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동자상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동자상의 지물 특징뿐만 아니라 경전내용을 담고 있는 불화 속에 나타난 동자의 상징성을 시대적,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일컬어지는 인성교육 관점에서 불교아동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過去現在因果經』(大正藏 3).
- 『佛說際蓋障菩薩所問經』(大正藏 14).
- 『大智度論』(大正藏 25).
- 『南海寄歸內法典』(大正藏 54).
- 『翻譯名義集』(大正藏 54).
- 한글대장경. 『묘법연화경』 해제.
- 가산 이지관. 『伽山 佛教大辭林』 권5.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3.
- 강소연. 「불화와 함께 보는 경전 이야기③- 『화엄경』<입법계품>: 선재동자 이야기(1)-」 『문학/사학/철학』37(서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4).
- 고정은. 「아시아미술에 나타난 선재동자 구법이야기」 『수완나부미』 2(1)(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2010).
- 구수연·나성식. 「2000년대 한국 아동영화에 나타난 아동상」 『열린유아교육연구』 16(6)(서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1).
- 국립청주박물관 편. 『불교동자상』 서울: 솔출판사. 2003.
- 곽만연. 「불교의 인간관과 인성관」 『學生研究』 29(1)(부산: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
-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 권기현. 「불교예술에 나타난 연꽃의 상징성 연구」 『密敎學報』8(경북: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회. 2006).
- 권대원·이영림. 「달라이 라마 행복론이 유아 인성교육에 주는 제언」 『생태유아교육연구』 12(3)(부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3).
- 권은주. 「불교의 아동교육관에 대한 연구」 『석림』 23(서울: 동국대학교. 1990).
- _____. 「불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II)」 『종교교육학연구』 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5).
- _____. 「인간아동 발달 및 교육에 관한 동서양 비교연구」 『아동권리연구』 1(1)(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
- _____. 「불교 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적용」 『아동권리연구』 4(2)(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2000).
- 권은주·박사빈. 「어린이 오계(五戒)를 주제로 한 유아음악활동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3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김보영·김현주. 「교사-부모 관계에서 경험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경기도: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 김수아. 「불교와 인성교육: 필요성과 특성, 그리고 방법-한국불교의 템플스테이-」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9(2)(서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3).
- 김승환. 「불교경전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연구」 『敎育論叢』 26(2)(서울: 국민대학교교육연구

- 소, 2006).
- 김용덕, 「불교설화에서 동자(童子) 출현의 양상과 의미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5(경기도: 실천민속학회, 2010).
- 김주현, 「인성교육에서의 불교의 역할」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3(서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07).
-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한국불교상담학회지』 5(1)(경북: 한국불교상담학회, 2013).
- 나정·김영연, 「공보육기관 운영의 불교적 요소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34(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노상경, 「유아교사-어머니 간 의사소통 저해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73(충북: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2).
-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새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5.
- 명법스님, 『미술관에 간 붓다』, 서울: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4.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2-2014.
-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병기, 「불교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인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
- 박부숙·이수경,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교육학연구』 5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박선영, 「佛敎의 兒童敎育觀과 그 韓國的 展開相」 『敎育史敎育哲學』 3(서울: 교육철학회, 1979).
- 손남숙, 「학령전기 한국 아동의 정서행동장애에 관한 연구 : Early child inventory - IV (ECI-IV)검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송석구, 「불교의 인성론: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佛敎學報』 19(1)(서울: 불교문화연구원, 1982).
- 신정아, 「강소천 동화의 아동상과 교육관- ‘꾸러기’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27(서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 안경식, 「불교에서 보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 마조선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53(부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 안정수, 「19세기 지장보살도에 보이는 선악동자 도상 연구」 『文物研究』 20(부산: 동아시아 문물연구학술재단, 2011).
- 여승민, 「가치 교육에 있어서 불교적 접근법의 의의」 『윤리철학교육』 10(충북: 윤리철학교육학회, 2008).
- 여은경, 「韓國 傳統時代의 童子信仰」 『역사교육논집』 13(대구: 역사교육학회, 1990).
- 윤허용하, 『불교사전』, 서울: 동국역경원, 2002.
- 유상덕, 「영성의 보고로부터 배우는 근대교육의 성찰」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 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2007.
- 유지현(고진)·김혜순, 「육바라밀에 기초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종교교육학연구』 48(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이강욱, 「오세암 설화와 동자의 수행득도」 『어문학』 128(대구: 한국어문학회, 2015).

- 이상옥. 『프리벨과 기독교 유아교육』 서울: 양서원. 1996.
- 이순자·유수옥.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유아 문제행동 관련 변인 분석-국내 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6)(서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2).
- 이영립(범우)·김혜순. 「어린이집 생명존중교육의 난점과 명상의 접목 가능성 탐색」 『한국불교학』 75(서울: 한국불교학회. 2015).
- 이정수. 「불교의 팔정도와 위빠사나 명상의 아동 교육적 함의(含意)」 『종교교육학연구』 3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이현섭. 「靑潭의 마음사상이 人性教育에 제시하는 교육적 示唆」 『청담기술연구소』 (경남: 진주산업대학교. 2003).
- 임상도·김윤미. 「불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교육과학연구』 45(4)(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4).
- 임영애. 「‘꽃줄과 동자’를 통해 본 간다라와 서역의 교류관계」 『강좌미술사』 25(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05).
- 임진광. 「불교경전에 나타난 동자상」. 국립청주박물관 편. 『불교동자상』. 서울: 솔출판사.
- 정선혜. 「한국 아동소설에 나타난 아동상 탐색」 『한국아동문학연구』 14(서울: 한국아동문학학회. 2008).
- 정진·성원경·이춘자·조인경.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유아에 대한 이미지」 『兒童教育』 16(4)(대구: 한국아동교육학회. 2007).
- 조명렬. 「童子像으로 表現된 佛教信仰」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8(경기도: 중앙승가대학교. 1999).
- 최윤철. 「고려청자에 표현된 연꽃문양의 유래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6(2)(경기도: 한국도자학회. 2010).
- 하수연·정서목. 「『팔정도(八正道)』에 담긴 유아 인성교육의 방법적 함의」 『MeFOT 창의인성연구』 1(1)(부산: MeFOT 창의인성학회. 2012).
- 한정섭·김인택. 『妙法蓮華經譯解: 戒環疏를 中心으로』. 경기도: 佛教通信教育院. 1994.
- 허균.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서울: 돌베개. 2014.
- 홍윤식. 『高麗佛書의 研究』. 서울: 同和出版公社. 1984.
- 홍윤식·최태희·이기선·김형우. 『전국 사찰 등 소장 동자상 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1.
- 황옥자. 「유아기 심성발달에 관한 불교의 역할 및 방향모색」 『종교교육학연구』 13(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_____. 「불교와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해주. 「『華嚴經』의 善財童子 순례」 『불교학연구』 7(서울: 불교학연구회. 2003).
- 弘法院編輯部. 『佛敎學大辭典』. 서울: 흥법원. 1994.
- <오므라진 연꽃서 7일 기다린 행자 잎 열리며 진리 듣고 수다원 얻어> 《법보신문》. 2016년 11월 9일자. 제21면.

원고접수일 :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5일

연구자소개: 나정

- ① 전공: 유아교육 / 소속: 동국대학교(경주)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정책
- ③ 주요논저: 『OECD가 선정한 5가지 유아교육과정』,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유·보 통합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공보육기관 운영의 불교적 요소에 관한 연구』
- ④ E-mail: nana34@hanmail.net

연구자소개: 이영립(범우)

- ① 전공: 유아교육, 응용불교 / 소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
 - ② 관심영역: 『법구경』과 인성, 불교인성과 교사교육, 명상교육
 - ③ 주요논저: 『달라이 라마 행복론이 유아 인성교육에 주는 제언』, 『어린이집 생명존중 교육의 난점과 명상의 접목 가능성 탐색』, 『유아 명상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방향 모색』
 - ④ E-mail: child-b@hanmail.net
-

Abstract

Study on Implications of Lotus Buddhist Boy Attendants to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Na, Jung · Lee, Youngrim(Ven, Beomwoo)

Dongguk University · Education Institute in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tus Buddhist Boy Attendants focusing on natural features and to explore their implications to the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A total of 60 Lotus Buddhist Boy Attendant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29 from ‘Buddhist Boy Attendants’ of Cheongju National Museum (2003), 25 from ‘Research report of Korea buddhist heritage’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Buddhist Cultural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Jogye Order (2002-2014), and 6 from ‘Research report of buddhist boy attendants owned by temples in the nation’ by Yoon-sik Hong et al. (1991) Lotus Buddhist Boy Attendants have distinction of having articles including lotus flower, lotus leaf, lotus bough, lotus bud and lotus leafstalk, where lotus buds were the most found from them. Moreover, the face of Lotus Buddhist Boy Attendants was mostly in a round shape appearing cheerful with quiet smile; and as they have relatively bigger heads compared to their bodies, which resembles actual physical shape of children. Regarding the implications to the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first implication is the child’s image which represents ‘a child who makes all surroundings clean and bright and is not easily affected by bad influences.’ The second is the educational view implying that ‘a child knows there is pure spirit deep down in all existences and he/she develops a skill to purify him/hersel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fundamental information contributing to educational value of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ity education as well as a pursuit to develop necessary measures.

Key words: *Lotus Buddhist Boy Attendants, buddh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s image, educational view, personality education*